엄태웅 드디어 '안방행'

'제3의…' 무산 후 '적도의 남자' 출연

연기자 엄태웅(사진)의 '안방극장행'은 험했다.

엄태웅이 3월 방송하는 KBS 2TV 수목드라마 '적도의 남자'(극본 김인영·연출 김용수)에 출연한다.

'적도의 남자'는 인간의 욕망과 엇갈린 사랑에서 비롯된 갈등과 용서를 그리는 정통 멜로 드라마로, 엄태웅은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싸고 친구 이장일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업가 김선우 역을 맡았다.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는 9일 "이번 작품에서는 엄태웅만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엄태웅은 '적도의 남자'에 캐스팅되기 전 의학드라마 '제3의 병원'(가제)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3의 병원'이 방송 편성 등을 이유로 제작이 미뤄지자 '적도의 남자'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국민 엄마' 김혜자도 세금 탈루

'1가구2주택' 관련 5억 세금 추징
스타 잇따른 탈루 논란속 비난 커

연예계 스타들이 잇따라 세금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해 개그맨 강호동과 연기자 김아중이 수억원대의 세금 탈루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 엄마'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중견 연기자 김혜자(사진)가 5억 원의 세금 추징을 당했다. 1가구 2주택 문제 때문이다.

김혜자 측은 이에 대해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주 불거지는 연예인의 거액 세금 추징 문제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서울 마포세무서는 김혜자가 서울 아현동 아들의 집에 거주하면서 2006년 6월 주민등록지를 자신 명의의 집인 서교동 단독주택으로 이전한 것을 적발했다. 현행법상 부모와 자녀가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한 곳에 거주하면 1가구2주택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김혜자는 5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김혜자는 이 주택을 1984년 6월에 구입한 뒤 2003년부터 7년 동안 임대해 카페로 운영해왔다. 지난해 3월 이 주택은 30억7500만원에 매각됐고 당시 그가 양도세로 신고한 금액은 1억 원이다. 1가구 2주택일 경우 양도세는 더 커진다.

김혜자의 세금 추징은 앞서 논란이 된 강호동, 김아중과는 성격이 다르다. 탈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강호동과 김아중은 수입과 활동비 등을 어떤 기준으로 정산할 것인가를 두고 관련 혐의를 받았다.

이와 달리 김혜자는 실제 소유 주택 문제로 논란에 섰다. 더욱이 그의 주택 소유 문제를 세무서에 고발한 제보자가 이 주택에서 7년 동안 카페를 운영해온 임차인으로 알려지면서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에는 가수 인순이가 2008년 세무조사 당시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세금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모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스타란 점에서도 대중의 실망감은 적지 않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김정민, 본인 사칭 동영상 수사 의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방송인 김정민(23)이 본인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정민은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이 있는 유튜브 링크가 퍼지고 있어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8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누군가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김정민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고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김정민은 8일 트위터에 해당 동영상 링크와 함께 "이번 일은 악플 등과는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다"라는 해명 영상을 올렸다. 김원겸 기자

가수 추가열·김형섭, 교통사고 당해

프로젝트 듀오 빨간우체통으로 활동 중인 가수 추가열(44)과 김형섭(44)이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홍보사 앤트웍스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9일 0시45분께 서울 합정동 당인리 사거리에서 제네시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방향에 주차돼 있던 산타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당인리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추가열과 김형섭이 탄 밴 승합차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추가열과 김형섭은 별다른 부상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고 귀가했지만, 9일 아침 자고 일어나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껴 이날 오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이정연 기자

아이유가 9일 서울 동덕여고에서 졸업식을 마친 후 두 팔을 벌린 채 V자를 그리고 있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아이유 졸업식 팬들 몰려 북새통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18)가 9일 여고를 졸업했다.

아이유는 이날 서울 방배동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장을 받았다. 학교에는 아침부터 약 50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졸업생 가족들과 일반 팬까지 몰려들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학교 전통에 따라 사각모와 졸업가운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한 아이유는 다른 졸업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학교 측과 협의해 미리 동선을 확보하고 인터뷰 장소도 별도로 마련했다.

아이유는 졸업식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졸업식장에서 지난 3년간 영상을 봤는데, (다른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추억이 더 있었으면 했는데 아쉬웠다. 하지만 뭔가 어른이 된 기분이다. 이제 성인이 됐으니 회사 회식에서 건배도 하고 싶다"고 졸업 소감을 말했다.

1월 중순 2집 '라스트 판타지' 활동을 마친 아이유는 그간 밀려있던 광고촬영과 일본 활동 준비 등을 하며 바쁘게 지내왔지만, 졸업 일만큼은 아무 일정 없이 모처럼 가족과 하루를 온전히 보냈다.

아이유는 음악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작년 수능시험에 응하지 않았다. 3월 21일 일본에서 '좋은 날'의 일본어 버전인 '굿데이'를 발표하고 일본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연기자 유승호도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백신고등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았고, 여성그룹 에이핑크의 윤보미와 남성그룹 더블에이의 김치, 호익도 서울 한국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연예뉴스 스테이션

동방신기, 日 도쿄돔·교세라돔 공연 1회씩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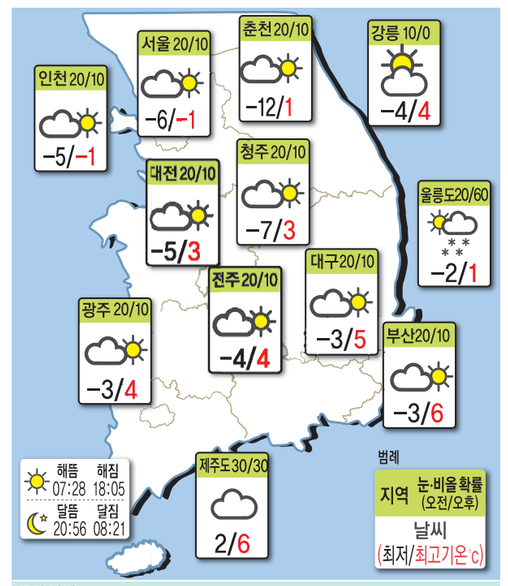
일본에서 전국투어를 하고 있는 동방신기가 도쿄돔과 오사카 교세라돔 공연을 1회씩 재추가해 55만 명의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1월18일 요코하마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전국투어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2012-톤'에 나선 동방신기는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도쿄돔과 오사카 교세라돔 공연을 이미 한 차례 추가한 바 있다. 동방신기는 여전히 티켓 과열 경쟁이 펼쳐짐에 따라 더 많은 관객과 만나기 위해 돔 공연을 1회씩 더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드림하이2' 신예 에일리, 첫 싱글 '헤븐' 내놔

KBS 2TV 월화드라마 '드림하이2'에 출연 중인 신예 에일리가 9일 첫 싱글 앨범 '헤븐(HEAVEN)'을 발표, 가수로 정식 데뷔했다. '헤븐'은 가수 휘성이 가사를 쓰고 신인 작곡가 이기·서용배가 작곡한 R&B풍의 솔 곡이다. 휘성은 이 곡의 프로듀싱도 맡았다.

오늘의 날씨

2월 10일 금요일 (음력 1월 19일)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11일(토)	-9/0	-12/0	-10/2	-6/3	-5/6	1/5
12일(일)	-7/3	-11/2	-7/5	-4/6	-4/8	1/9
13일(월)	-4/4	-7/3	-2/5	1/5	1/8	8/10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대근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인		편집부	02 2020 1039
인쇄인	최맹호	스포츠1부	02 2020 1052
편집국장	이성춘	스포츠2부	02 2020 1051
광고국장	이승욱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사진부	02 2020 1068

www.sportsdonga.com
(우)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